



임용고사 합격을 위한



최종 합격

♡ 유임정 9기 - 합.격.수.기. ♡

수강생명	김○○ 수강생		수강방식	인강/직강 병행	
응시지역	경기		병행 여부	1년차: 학부병행 2년차: 올인 / 3년차: 일병행	
공부경력	3년(실제 공부기간: 2년)		등수	경기 48 등	
점수	1차	교육과정: 64 논술: 17	2차	수업실연: 26.6 수업나눔: 29 면접: 38.13	

좌우명	知之者不如好之者 好之者不如樂之者 (아는 이는 좋아하는 이만 못하고, 좋아하는 이는 즐기는 이만 못하다)
-----	---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이렇게 합격 수기를 남길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저 역시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와 방향을 잃고 방황할 때 많은 분들의 합격 수기를 참고하며 방향을 잡았던 기억이 있어,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남깁니다.

특히, 이번 합격은 교수님 덕분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기에, 많은 분들이 교수님과 함께하며 알차게 공부해나가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교수님의 강의를 바탕으로 어떻게 공부해 나갔는지를 중심으로 공유하려 합니다.

다만, 저는 조금 특이한 공부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는 유아교육을 복수전공한 학생으로, 주전공생들에 비해 기초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초수 시절에는 학부 수업과 졸업 논문 두 편 작성을 병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년 초에는 다른 과목으로 임용을 준비하다가 중간에 유아 임용으로 과목을 바꾸어 늦게 공부를 시작하였고, 상당히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재수 때는 올인하며 시험을 준비했었고, 3수 때는 임용을 잠시 접고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다가 9월이 되어서야 고등학교 일을 병행하면서 다시 유아 임용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온전히 임용 준비에 집중했던 재수 시절 경험을 중심으로 합격 수기를 작성하려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저의 경험 중 본인의 상황에 맞는 부분만 선별하여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불합 원인

1. 선택적 공부를 한 점

동기들과 함께 중요도 스터디를 진행하며 공부 내용에 중요도를 부여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암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것까진 안외워도 되겠지'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며 넘겼던 내용들에서 3문제 이상 출제되어 모두 틀렸습니다. 교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모든 것들은 선별적으로 취하지 않고 모두 암기하고 내면화하는 것이 합격을 위한 기본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2. 효율적이지 못한 공부를 한 점

처음에는 공부 방법을 몰라 불필요한 행동들을 많이 하며 시간을 버렸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가장 큰 후회 점은 교수님 강의를 듣고 저만의 요약자료를 만든 점입니다. 매일 하루 분량의 인강을 수강하고, 따로 한글파일에 배운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이해하고 복습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는 단순히 배운 내용을 옮겨 적는 것에 그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차라리 이 시간에 개념 한 개라도 더 암기한 후에 인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초수 시절 당시 저는 J 성향이 강해 사전에 계획했던 시간표대로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부족한 단원이 있어도 해당 날에 다른 단원을 공부하기로 계획했다면 계획한 공부 내용을 지키는 것을 우선시하였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메꿔나가는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2. 시기별 (월별 혹은 강좌별) 공부 계획 및 방법 (유임정 강의 활용 방법)

[개각론 강의(1~6월) 시기 공부법]

1. 매일 조금씩, 이해하는 공부하기

저는 토요일마다 직강을 수강해 하루 종일 이론 강의를 듣고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복습을 하였습니다. 그 주에 배운 내용을 5~6분량으로 나누어 공부를 하니, 하루에 공부해야 할 분량이 많지 않아 부담없이 복습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부터 단순 암기에 약하고 내용을 이해해야 암기가 가능하고, 구조화하여 이미지로 암기했을 때 훨씬 더 잘 외워지는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면지에 가지를 그려가며 배운 내용을 구조화하며 내용을 이해하고, 그 후에 암기를 하였습니다.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구조화한 내용을 적은 이면지를 전체의 하나의 이미지로 암기하여 더 쉽게 암기하고, 상하위 유목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시험문제는 단순히 암기한 내용들을 적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기반으로 적용하고 응용하는 문제들로 경향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단계 명칭과 정의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단계에 유아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를 상상하며 특징들을 이해하고 내면화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 자투리시간 활용해 암기하기

[고시문 / 7대안전 및 아복법 / 놀이실행 암기]

저는 위 내용들을 암기하는 데에는 따로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습니다. 고시문은 유튜브에 '쌍송스터디' 채널에서 올려주신 고시문 송을 이동시마다 반복해서 들으며 자연스럽게 암기하였고, 7대안전 및 아복법은 A4한 장으로 타이핑하여 코팅해 화장실 벽에 붙여놓고 샤워하면서 암기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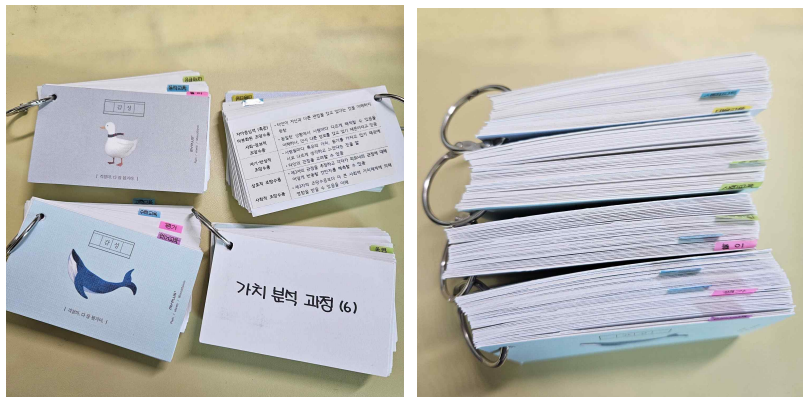
놀이실행자료는 교수님께서 주시는 놀이실행 암기자료를 모아찍기하여 코팅해 이 역시 샤워할 때 암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공부시간을 따로 할애하지 않고 버려질 수 있는 자투리 시간들을 활용해 암기를 진행하니 공부시간 확보에 큰 도움이 되었고, 단순암기를 몹시 싫어하는 저같은 경우에는 부담 없이 매일 하나씩만 암기하자! 는 생각으로 진행해 스트레스 없이, 매일 반복하며 확실히 암기할 수 있었습니다.

[단계 암기]

처음 읽기 쓰기 발달 단계와 사회관계 영역의 수많은 단계들을 암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막막함을 잊을 수 없습니다. 암기에 정말 자신이 없었던 저는, 자리에 앉아서 해당 단계들을 암기하기 위해 애썼지만 쉽지 않았고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수님의 요약자료를 단면인쇄로 한 부 더 인쇄해 암기가 되지 않은 부분들을 표시해 부모님께 오려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수험생에게는 짧은 시간도 소중한 친구나 형제, 부모님 등 주변에서 나의 합격을 응원해주시는 분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린 요약자료를 손바닥만한 크기의 암기장에 붙여 이동할 때마다 외웠습니다. 자취방에서 임고실, 임고실에서 식당까지 이동하는 하나 하나의 동선 마다 '바탈 돕기행동 단계' 등 하나의 단계를 암기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외우기 싫은 단계들을 이동시간에 외우니, 공부 시간에 외워지지 않는 단계를 붙잡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시간 낭비하는 시간도 줄었고, 이동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외우다보니 자투리 시간도 가치 있게 사용하고, 더 기억에도 오래 남아 초수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던 공부법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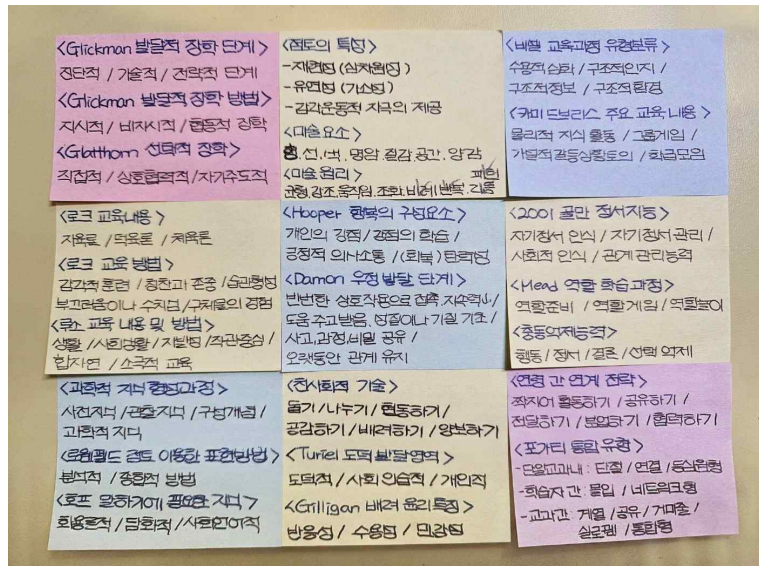
또한 포스트잇에 끝까지 안외워지는 단계들을 적어 부엌 식탁 옆에 붙여놓고 밥 먹을 때 조금씩 떼어 암기한 후, 식사가 끝난 후 부모님께 테스트를 받는 방법으로 밥 먹는 시간에도 재미있게 공부하였습니다. 완벽히 외워서 떼어 한 곳에 모아진 포스트잇이 쌓여가는 모습을 보며 성취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어카드(암기장) 활용



앞장에는 제목(단계명)을, 뒤에는 요약자료를 붙여 암기 후 인출도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카드리ング을 활용하니, 나중에는 안외워지는 단계들만 따로 묶어 들고다닐 수 있어 좋았습니다!

포스트잇 활용



3. 연결지어 이미지로 암기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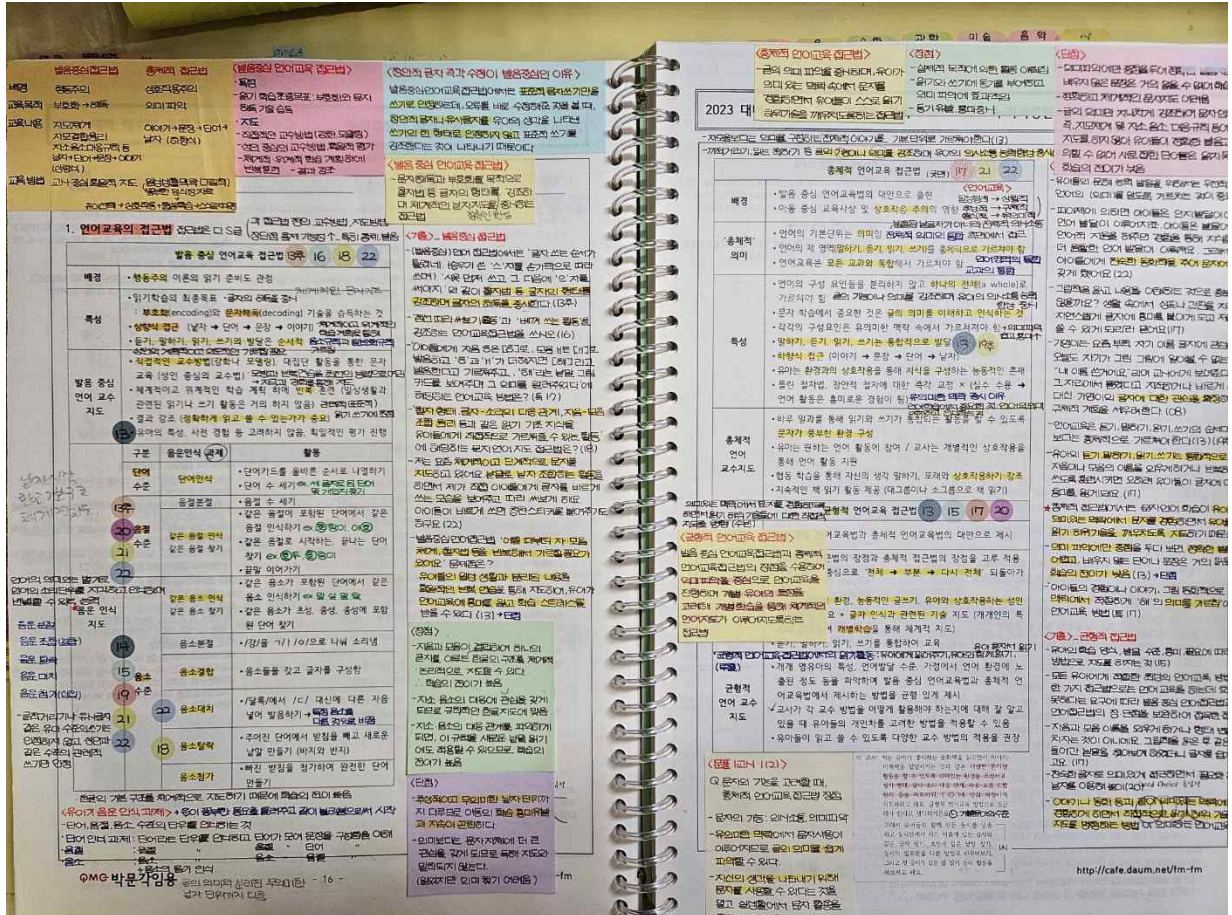
앞서 언급했듯 저는 하나의 이미지로 암기하는 것이 저에게 맞는 암기법임을 알고, 교수님 개각론 요약자료를 책으로 제본해 기본서, 기출, 문풀, 모고 단권화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출은 해당되는 모든 문구들을 적었고 이 문구들을 이론 내용과 연결지어 암기하였습니다. 기출 문구들을 이론 내용을 보면서 수시로 암기할 수 있어 좋았고, 기출과 기본서에 써진 정의들 중 제가 가장 입에 잘 붙는 말들을 표시해 암기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문풀과 모고 때는 모든 것을 단권화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틀린 문제들이나 꼭 암기해야 할 문구들, 새로 추가된 이론들을 포스트잇으로 추가하거나 자료를 복사해 단권화하였습니다. 이렇게 개각론 요약자료에 단권화를 진행하여 이를 주로 활용하여 암기하였고, 세부 필기 내용까지 모두 암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페이지마다 어디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도 자연스레 암기되었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에 시간의 구조화 방법을 사용한다는 내용이 주어지면서 학자명을 쓰라고 문제가 나왔는데, 순간적으로 학자명이 드라이커스와 에릭번이 너무 헷갈려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요약자료 우측 중 하단에 시간의 구조화 내용이 있었다는게 생각났고, '그 위치면 에릭번이었지'하며 에릭번 요약자료 이미지를 기억해냄과 동시에 드라이커스 부분의 요약자료 이미지를 떠올리며 정답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요약자료가 표 형태로 정리되어있어 구조화가 잘되어 요약자료를 선택해 단권화를 진행했었습니다. 다만, 저는 기본서를 소홀히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줄글로 보는 것에 익숙하신 분들은 기본서에 단권화하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요약자료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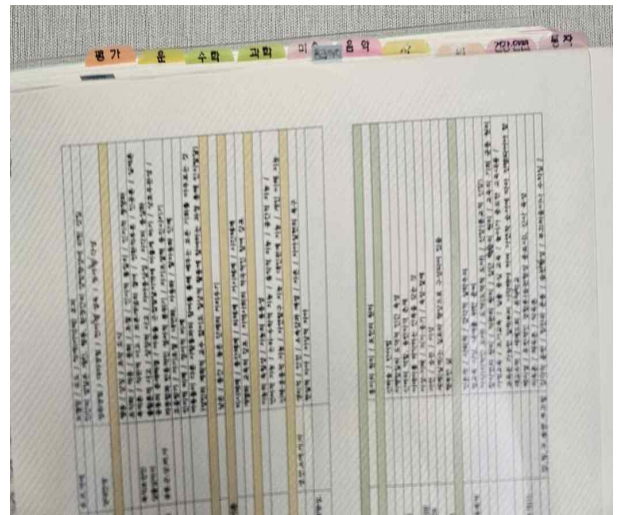
→ 동그라미 스티커에는 기출 연도표시를 하였고(별로 도움안됨), 페이지 오른쪽 줄글로 적은 것은 기출 문구들입니다. 포스트잇에는 문풀내용들이나 추가해서 암기할 내용들을 적었고, 기본서에 비해 부족한 내용들도 추가로 적어 보완했습니다.



요약 자료뿐 아니라 모든 개각론 이론서에 꼼꼼하게 인덱스 표시를 하였습니다. 필요한 부분을 한 번에 펼칠 수 있어 정말 편리했기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우측: ex. 권위, 공정성, 돕기, 접근법

상단: ex. 동작, 건강안전, 언어, 사회, 음악, 미술, 수학, 과학, 운영, 평가)



4. 해이실, 법, 안전은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하기_(시험 직전까지 지속)

	월	화	수	목	금
해이실	해 8-21	해 24-34	해 35-43	해 44-55	실 10-22
	실 24-31	실 32-43	실 44-59	실 60-66	실 68-82
법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교육기본법
	인성교육법	아동복지법	특수교육법	교사론법	교원평가+생기부
안전	건강, 영양	감염병	실내외안전	교통안전	약물, 성폭력
	실종·유괴	아동학대	전자미디어, 황사, 미세먼지	지진, 화재	응급처치

저는 매일 오전 2~3시간 정도를 투자해 위와 같은 루틴으로 해이실, 법, 안전 암기를 반복하였습니다.

해이실	매일 정해진 분량의 해설서, 실행자료를 읽고 요약자료 내용들을 통째로 암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면	법령들을 모두 모아 책으로 제본해 인덱스로 표시한 후, 암기펜으로 교수님께서 중요하다고 강의 때 표시해주신 부분들을 칠하고 초록 암기 시트로 가리면서 인출하였습니다. (초록 암기시트로 가리면 분홍색 암기펜으로 칠한 부분들이 새까맣게 되어 안보여요) 법 양이 많아 외우기 막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암기하세요. 저는 법 암기가 제일 수월했습니다.
안전	안전은 6쪽의 표에 요일별로 표시된 주제를 기준으로 책, 요약자료, 길라잡이, 법, 보충자료를 모두 연결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11-12시 인출스터디를 진행할 때 10분 정도 물어보고 인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중에 모고 시기에는 제가 책+요약자료+길라잡이+보충자료를 요약해둔 요약집과 법만 돌려보면서 시간을 줄여나갔습니다.

2. 실내외 안전

안전관리	
현장전학 사전답사	아동 동선 점검 / 전학장소 안전확인 / 동공상황 시 활용할 구조물 및 시설 확인
현장전학 준비	전학 장소에 헬프 글로브 발송 / 사전답사 보고서 작성 학부모로부터 현장학습 참가 동의서 받기 / 차량 안전요소 확인 / 구급약을 / 특이병력 유무 관리 덜덜 유아 병단 및 보호자 연락처 소지
현장전학 실시	수시 인원 점검 / 유아 행동 파악 / 안전규칙 회상 / 충분한 시간 제공
현장전학 후 활동	안전한 전학활동에 대한 사후 평가
시설 및 환경 안전 - 교재·교구	
안전 인증	제품검사, 공정심사
안전 확인	제품검사
공급자적합성 확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
어린이 놀이시설	
놀이시설 설치 전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함 지자체가 지정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 합격해야 함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예방에 30일 이내 가일해야 함
놀이시설 관리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안전검사 안전관리자, 월 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연결상태, 노후정도, 변형, 정렬, 안전수칙 표시유무) 결과를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기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교육: 2년에 1회 이상, 1회 4시간 이상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교육부장관, 교육시설 기본계획을 교육시설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시행, 이를 공표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 위해) - 교육시설안전인증: 연면적100제곱미터 이상의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교육시설안전인증 받아야 함 평가기준: 최우수, 우수 - 연 2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교육 시설의 정) ->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 -> 감독기관장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 -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필요할 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위탁해 정밀안전진단 실시
질라잡이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와 교육시설 공제사업 실시 위해 교육부장관이 설립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어린이 놀이시설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 - 국가기술표준 준용 안전점검표: 제품의 결함이나 사고를 신고, 사용 제품의 안전인증이나 자율안전확인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 국내외 리콜정보 확인, 제품안전 정책 및 규정, 제품안전 정보 및 동향 확인 - 살내 공기 질 점검 필수: 일상생활-매우열악 / 정기점검-상하한각각 1회 이상

별. 실내외 안전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교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 결과 해당 교육시설이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해야 함 안전·유지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은 매년 1회 이상 해야 함 유지점검은 연2회 4월과 10월에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현황을 정보공시함
실내외 안전	확장성 소독: 4~9월(주 3회 이상), 10~3월(주 1회 이상) 건물소독: 4~9월(2개월에 1회 이상), 10~3월(3개월에 1회 이상) 일상적으로 유지된 자체 살(아무 1번 이상) 감염병 환자 생겼을 때, 행사 시

6. 아동학대

아동학대 예방	전급전학 설치(아동학대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 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신고의무교육: 매년 1시간 이상(아동학대 신고의무자제/제/합동교육,사정각교육,인바넷강의) -교육내용: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아동학대 발생시 신고방법 / 피해아동보호절차 -재학(학)과제이나 보수교육과정에 관한 교육 1시간 이상 포함)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 할 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필수: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내용: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 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 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방법 -학부모 대상: 연 1회 이상 -유아 대상: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4시간 이상
아동학대 신고	-사도 또는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 -아이가(자)를 112(필) -112 또는 120 (24시간 신고접수: 가까운 지역아동센터로 자동연결) 112 신고: ①유아에 대한 폭력·성폭행·유기 등이 발견된 경우 ②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유아 인양을 거절할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③유아가 가혹하여 거주하지 않거나 조조까지 확인되지 않아 소거 불발의 경우
아동학대 발생 시 대처요령	①아동학대 의심 및 발견: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인지, 아동 및 보호자 관찰, 판단해 아동학대 가능 성 파악, 응급상황 시 아동 안전 우선 확보(단급 시 아동용 병원에 데려간 이후에 신고) ②아동학대 신고(112):학대의상내용, 아동 및 학대행위자, 신고자 정보 전달 ③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유지: 피해아동에 대한 재학(학)에 부속 계속 관찰
무단결석 아동에 대한 관리 대응	아동학대 초기발견 위해 매일: 영유아 건강안전 확인 / 결석 아동의 결석 사유 확인 아동학대 징후 체크리스트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용 점검표 결석 담당: 결석 아동의 결석 사유 확인 -> 지속적 유선연락을 통한 확인 -> 무단결석 아동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리대장 작성 2일이상 무단결석: ①결석 아동의 출석여부 확인 및 소재 안전 확인 ②결석 아동에 대한 가정방문 실시 / 가정 방문 결과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아동의 소재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112) 신고 ③무단결석 아동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리대장 작성 / 무단결석 아동 중 아동학대 신고연할 교육청/시·군·구 보고 (무단결석 아동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리대장 작성) (무단결석 시 정보제공 및 가정방문 등 용어)
	월별 교육일이 6일 미만인 유아의 정보: 보건복지부 장관과 공유
	전급전학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 설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①아동학대 신고접수 할당조사 및 응급보호 ②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③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제22조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아동학대예방사업 ①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②아동학대 예방사업에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③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④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⑤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피해아동) 지원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제23조 아동학대예방의 날	11월 19일 / 그로부터 1주일: 아동학대 예방 주간
제28조 사후관리 등	아동학대 제발 여부 확인: 보정할 장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장 / 가정방문, 전화상담 통해

안전 요약자료 예시

5. 논술

저는 학부 마지막 학기 때 교직 논술 강의를 성실히 수강해 논술 준비는 어느정도 되어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논술은 강의 수강(직강), 교수님 피드백을 반영한 수정 및 보완 외에는 큰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습니다. 논술을 잘 쓰기 위해서는 글의 기본 구조를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이실과 개각론 암기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내용 암기가 충분하다면 특별한 연습 없이도 점수를 깎이지 않는 논술을 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이실 내용을 꼼꼼히 암기해 23년 시험에서 큰 어려움 없이 논술을 작성해 만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논술 작성을 소홀히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논술 강의 문제, 모고 문제 등 매주 1개의 논술은 꾸준히 작성하며 감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시험 준비 때에는 논술은 자신 있다고 생각해 열심히 연습하지 않고 들어가 논술 문제가 아주 쉬웠음에도 17점을 받았습니다.(어디서 왜 감점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자만에 빠져 어리석은 결과를 접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ㅎㅎ 매일 꼭 논술 연습하는 시간을 갖길 추천드립니다.

[문풀 강의(7~8월) 시기 공부법]

1. 일주일에 한 과목 완벽 암기하기

저는 목요일에 문풀 문제를 풀고, 토요일에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수요일에 해당 주차의 내용을 4등분하여 꼼꼼하게 암기했습니다. 목요일에는 문풀 문제를 풀고 틀린 부분을 보완하는 것에 힘썼으며, 토요일에 다른 수강생분들이 문제를 푸실 동안 저는 암기가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 암기하였습니다.

문풀 시기에 제가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수업 때 교수님과 함께 인출한 부분입니다. 맨 앞에 앉아 교수님께서 문풀을 해설해주시면서 해당 문제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인출하실 때, 저도 같이 소리 내어 인출하였습니다. 교수님과 같이 인출하며 상호작용한다는 느낌에 저는 문풀 수업시간이 정말 재미 있었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 먼저 더 빨리 생각해 교수님 말씀을 듣고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닌 내 스스로 인출해냈을 때의 쾌감을 즐기기 위해 더 열심히 암기했습니다.

문풀 시간표

문풀(개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8-9	8-8:20 해이실 요약 공부 / 8:20-8:30 해이실 스터디 / 8:30-9 해이실 정독					부족 부분 보충 암기	부족 부분 보충 암기	
9-10	법, 안전	논술 강의	법, 안전					
10-11	연도별		연도별 기출					
11-12	기출							
12-1	점심 (오답노트 암기)							
1-2	복습영역 2	논술 강의	복습영역 3	고시문 타이핑	복습영역 4	문풀 강의	본 영역② 1	
2-3		법, 안전		연구실 (문풀 문제풀기)			복습영역 4	본 영역② 1
3-4								
4-5	본 영역① 3	본 영역① 4	본 영역① 5		해이실 문제 놀이이해자료			
5-6								
6-7	저녁 (오답노트 암기)							
7-8	본 영역② 3	본 영역② 4	본 영역② 5	연구실	복습영역 5	문풀 오답	본 영역① 2	
8-9							본 영역② 2	
9-10								
10-11	인출스터디					본 영역① 1	본 영역② 2	
11-12	스터디 정리 및 마무리 공부, 씻기(7대, 아동복지법, 놀이실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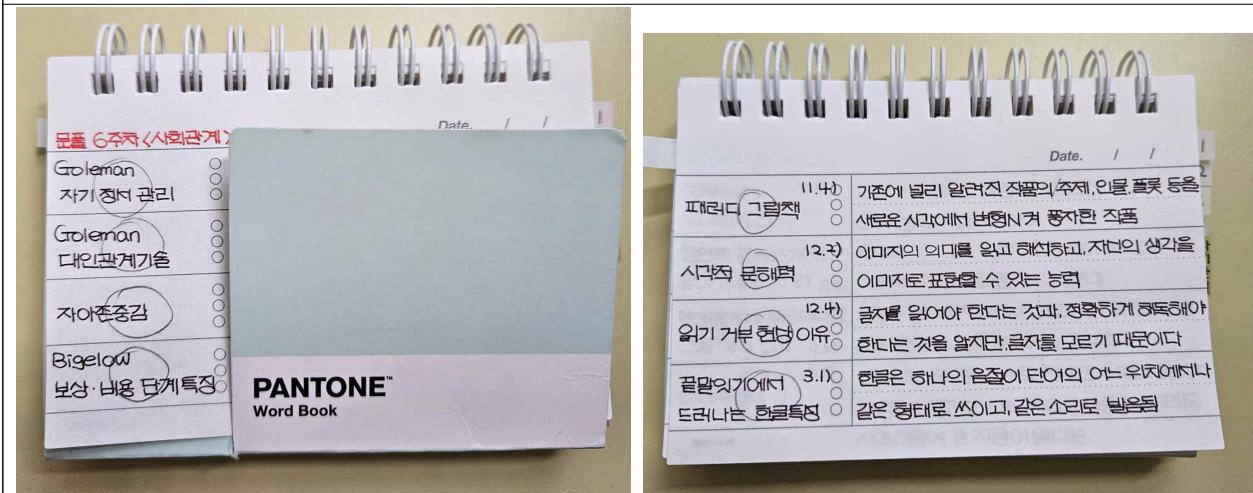
2. 오답노트 작성하기

수업이 끝난 후에는 항상 마지막으로 남아 궁금했던 내용들을 질문하였고, 질문 줄이 줄기를 기다리면서 틀린 내용들을 모두 오답노트를 작성하였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는 강의실이 소란스러워 암기에 집중할 수 없었기에 머리를 많이 쓰지 않아도 되는 오답노트를 만들었습니다. (모고 때도 지속)

단어장을 활용하여 왼쪽에는 암기 제목을, 오른쪽에는 내용을 적고 가려가며 암기하고 인출했습니다. 이 오답노트 암기 역시 따로 시간을 할애해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 시간과 노랑진을 오가는 지하철 안에서 암기하였습니다.

저는 직장 쉬는 시간이나 수업이 끝난 후에도 다른 수강생 분들과 함께 이야기 하고 싶은 마음을 꼭 참고 수업 내용을 돌아보거나 한 문장이라도 더 외우면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오답노트



3. 인출스터디

저는 문풀 시기 월~금 11시~12시에 인출 짝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카페에서 함께할 분을 구했고, 감사하게도 마음 맞는 분과 서로의 합격을 응원하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실히 인출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여러 스터디를 진행했었지만 저는 이 인출 스터디 하나만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짝선생님과 저 모두 MBTI가 ISFJ로, 계획적이고 책임감이 강해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계획에 따라 철저하게 스터디를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터디는 한 사람 당 30분씩 인출하였고, 건강안전과 해이실 10분, 해당 주차 내용 20분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목요일에 문풀 시험을 봐야 해서 저는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암기를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일정이 맞지 않아 각자 그날 공부한 부분들을 말하고 질문(ex.콜버그 도덕성 발달 단계에 대해 설명하세요)을 하고 해당 질문에 답변하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서로 다른 부분을 인출하다보니 저는 짝선생님께 질문을 해주면서 저도 다시 한 번 복습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모고 강의(9~10월) 시기 공부법]

1. 지치지 말고 꾸준히

모고 시기가 되면서 저는 스터디를 그만두고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늘려나갔습니다. 독서실에서 매일 점점 많은 양의 공부를 쉬는 시간 없이 진행하며 너무 지치고 힘들었지만, 노량진에 가는 목요일과 토요일을 힐링하는 날로 바라보며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버텼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힐링거리를 하나 만들어 시험날까지 마지막 힘을 모두 모아 지치지 말고 정진하시기를 응원합니다.

모고 시기 하루 공부

YEAR / MONTH / DAY	D - DAY
2023.10.24. MON	D-19
COMMENT	TOTAL TIME
	13H 53M
TASKS	THATABLE
고사문 정자1, 신·사·자·이복법	○
고사 불문학 지리·민중적사고	○
효능감·교사역할·교사론법·국리	○
발달이론·정착	○
신체 기초체력·지각운동능력	○
기본통작유형·운동능력 발달	○
동작교육내용·기본요소·점근법	○
교수법	○
문풀 외·소통·예술경험	△
법 유아교육법·교사론법	○
안전 건강·영양	○
모고 5회 B1-4	○
기출 2020A	○
누리 요약·원문·내용(신·신)스터디	○

YEAR / MONTH / DAY	D - DAY
2023.11.05.SUN	D-6
COMMENT	TOTAL TIME
	14H 10M
TASKS	THATABLE
안전 건강·영양·검정법·응급 1-5	○
놀이 놀이 이해·놀이 이론·사회적놀이	○
인지적놀이·관찰적도·가단·형성	○
발달 양육주의·행동주의·상호작용주의	○
다중지능·매슬로우·로저스	○
신체 체력·지각운동능력·기본통작유형	○
운동능력 발달·동작교육내용	○
기본요소·점근법·교수법	○
언어 성질·구조·기능·언어습득이론	○
음성언어발달·문학적 발달·한글	○
점근법·영역별 지도·이동문학	○
아동문학 실제·내용	○
법 교사론법·생기부	○
누리 요약(원·내용(신·신)·문제	○

저는 모트모트 플래너를 활용하였습니다. 모고 시기에도 기출, 문풀, 모고 복습을 꾸준히 반복하였습니다. 해이실 공부는 아침에하니 늘어난다 것 같아 후반부에는 저녁 공부 마무리 전으로 바꾸었고, 해이실 암기가 부족한 것 같아 카톡으로 서로 2문제씩 질문하고 답하는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2. 자신에게 맞는 인출 일정 세우기

저는 모고 처음 시기부터 일주일에 1회독을 할 자신이 없어 2주에 1회독 -> 10일에 1회독 -> 7일에 1회독 -> 5일에 1회독 -> 3일에 1회독 -> 시험 전날 전범위 1회독으로 점점 회독 주기를 줄여나갔습니다. 또한 개론과 각론을 짚지을 때 자신 없는 각론-자신 있는 개론 혹은 자신 있는 개론-자신 없는 각론을 짚지어 인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체-교사, 의사-놀이, 사회-성격, 예술-사상, 운영-부모를 함께 인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많은 내용을 어떻게 이 짧은 시기에 다 돌리지? 하는 막막함이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암기된 부분이 늘어남에 따라 인출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 결국에는 해낼 수 있었습니다.

모고 시기 일정

9월				10월				11월			
28	월	발달	13A	25	월	신체	발달, 부모 2	22	월	신체	교사
29	화	신체	13B	26	화	의사	발달, 부모 3	23	화	의사	놀이
30	수	의사1	사상1	27	수	사회	발달, 부모 4	24	수	사회	성격
31	목	의사2		28	목	밀린 것	사상2	25	목	모고 7회	음악
1	금	사회1	성격, 놀이 1	29	금	예술	성격1, 사상 3	26	금	자연	사상
2	토	사회2	사상, 놀이 2	30	토	자연	성격2, 사상 4	27	토	미술	
3	일	음악+체크인출	사상, 놀이 3	1	일	운영	성격3, 사상 5	28	일	운영	발달
4	월	미술	사상, 놀이 4	2	월	밀린 것	발달, 교사 1	29	월	밀린 것, 체크, 문종, 모고 → 통원개년 관련 내용 전체 인출	21B
5	화	과학	사상, 놀이 5	3	화	신체	발달, 교사 2	30	화	의사	놀이
6	수	수학	교사, 부모 1	4	수	의사	발달, 교사 3	31	수	사회	교사
7	목	모고 1회	교사, 부모 2,3	5	목	모고 2회	밀린 것, 체크	1	목	신체, 예술	사상
8	금	운영1	교사, 부모 4	6	금	사회	발달, 교사 4	2	금	자연	성격, 발달
9	토			7	토			3	토	운영	부모
10	일	운영2	교사, 부모 5	8	일	예술	발달, 교사 5	4	일	신, 의	놀이, 발달
11	월	신체	성격, 사상 1	9	월	자연	놀이, 부모 1	5	월	사, 예	사상, 교사
12	화	의사1	성격, 사상 2	10	화	운영	놀이, 부모 2	6	화	자, 운	성격, 부모
13	수	의사2	성격, 사상 3	11	수	밀린 것	놀이, 부모 3	7	수	신, 의, 사	놀이, 발달, 성격
14	목	모고 3회	성격, 사상 4	12	목	모고 4회	문종 다시보기	8	목	예, 자, 운	교사, 사상, 부모
15	금	사회1	성격, 사상 5	13	금	신체	놀이, 부모 4	9	금	전범위(전체회독+체크포인트 위주 암기)	
16	토			14	토		놀이, 부모 5	10	토	시험	
17	일	사회2	놀이, 교사 1	15	일	의사	교사	11	일	영역별 기출, 문종모집 같이보기 일몰은 체크표시 먼저 재인출 [암기 확장] 신체-교사 / 의사-놀이 / 사회-성격 / 예술-사상 / 자연-발달 / 운영-부모	
18	월	음악, 미술	놀이, 교사 2	16	월	사회	성격	12	월		
19	화	과학	놀이, 교사 3	17	화	예술	사상	13	화		
20	수	수학	놀이, 교사 4	18	수	자연	발달	14	수		
21	목	모고 3회	밀린 것, 체크	19	목	모고 5회	개론밀린것, 체크	15	목		
22	금	운영1	놀이, 교사 5	20	금	운영	부모	16	금		
23	토			21	토		밀린 것, 체크	17	토		
24	일	운영2	발달, 부모 1	22	일	밀린 것	놀이	18	일		

목요일에는 모고 문제를 풀어야 해 개론 공부나 밀린 부분을 해결하는 날로 배정하였고, 토요일에는 직장에 가야했기에 따로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 때 그때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나갔습니다.

기출은 해당 연도에 나온 문제들을 훑으며 연도별 기출을 뽑아 제본한 제본집에 문제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적으며 인출하였습니다. 기출을 소홀히하면 안된다는 생각에 진행하였지만, 어차피 기출 문구들은 다 단권화하여 암기했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되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3. 인출 목록표를 이용하여 꼼꼼하게 인출하기

저는 인출 목록표를 만들어 유용하게 활용하였습니다. 인출 목록표 왼쪽 부분에 인출 해야할 목차들을 적고 오른쪽에는 내용을 적어 가려가며 종이에 백지쓰기를 하였습니다. 물론 이후에는 이 목록 도움 없이도 요약자료 순서를 모두 암기하고 있어 인출이 가능했지만, 기출되었던 사소한 내용들(ex. 무지개 생기는 원리 적절x이유 / 글자 즉각교정 문제점 등)까지 모두 놓치지 않고 인출하고 싶어 이 목록표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조용히 임용 공부를 할 때에 학교 노트북에 이 목록표를 오른쪽을 지우고 띄워놓은 후 타이핑해 인출하고, 집에 와서 맞춰보는 등의 용도로 활용했습니다.

4. 2차 공부법

저는 2차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지 못했다고 생각해 그냥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2차 준비기간에도 일을 병행했기 때문에 저녁 시간과 주말만 온전히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다른 분들과의 스터디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보다 개인 공부를 충분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차 스터디를 거의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1. 면접 공부법

면접 매일 교재의 기출과 연습문제 중 한 세트를 골라 영상을 찍고, 돌려보며 태도를 보완해나갔습니다. 내용 적인 부분은 동기와 함께 재학생 때 만들어놓은 만능틀을 보완해가며 준비했습니다. 면접 주제별로 나누어 목차를 만들고 내용을 생각해 정리해 총 71쪽 분량의 만능틀을 반복해 보며 내용을 암기했습니다. 또한 시책과 교육부 자료들을 매일 일정 분량씩 정독하며 면접으로 출제될 만한 내용들을 골라 예상 질문을 만들고 답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면접은 이미 기출된 문제들을 영상을 찍고 내용을 외운 것보다, 예상 질문들을 뽑고, 만능틀을 만들며 저의 교직원이나 학급 운영 방법, 경험들을 정리해둔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 수업 실연 공부법

처음 수업 실연을 연습할 때는 대본을 보고 그대로 읽는 것도 교사답게 읽히지 않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유튜브나 사례운영반의 수업 잘하시는 선생님들 영상을 찾아보고 수업을 입히는 방식을 배우고자 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보니하니가 되었다고 생각하거나, '난 지금 교사를 연기하는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수업하니 자연스럽게 앞에 진짜 유아들이 있는 것처럼 실감나게 실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끄러움을 이겨내시고 실제 앞에 유아들을 상상하시면서 연기하시면 시선도 말투도 자연스럽게 유아중심으로 되실거예요!

저는 수업을 잘하는 친구와 짝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이미 서로 충분히 수업을 잘 이끌어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기에 서로에게 피드백 해주는 것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수업 아이디어만 취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저는 일을 병행하였기 때문에 2차를 준비하면서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6시간도 채 되지 않아 경기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자유놀이를 위주로 실연을 준비하였습니다. 물론 다른 유형들의 진행 순서는 모두 암기해두긴 했습니다. 만일 다른 유형이 나온다면, 암기해 놓은 만능틀로 끼워넣어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5쪽과 16쪽에 제시된 표는 제가 만들었던 만능틀 중 자유놀이 만능틀을 가져와보았습니다! 부족한 만능틀이기에 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만들었는지 정도로 참고해주세요~ 저는 여러 만능틀들을 나눔받았었지만 결국 저만의 만능틀을 스스로 만들었을 때 가장 잘 외워지고 수업도 가장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유놀이	
도입	1. 주의집중 - 노래를 부르는 동안 우리 꿈마루반 친구들이 모두 놀이 나눔 자리에 모여주었네요. 우리 오늘 왜 이렇게 모여앉았지요? 그래요.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때 활용하는 '꿈마루반 놀이너울' 게시판에 oo이가 폴라로이드 사진을 붙여주어서 함께 이야기 해보려고 모여보았죠. oo이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궁금해요? 선생님도 정말 궁금한데, oo아 친구들과 어떤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었는지 나와서 이야기해줄 수 있나요? 2. 놀이 사진 / 영상 보며 이야기 [도입 시 활용] 놀이 나눔 자리 / 이야기 나눔 자리 / 놀이 너울 게시판 / 이야기 너울 게시판 / 감정판 / 모여라 중 [놀이너울 게시판 사진 보며 이야기 나누기] _ 폴라로이드 사진 / 미러링 화면 - 선생님이 이 폴라로이드 사진을 실물화상기로 보여주면 좋겠어요? 친구들과 사진을 크게 보면서 이야기해보고 싶군요. 알겠어요. 그럼 선생님이 oo이가 찍은 사진을 실물화상기 위에 놓아줄게요. - 꿈마루반 친구들 모두 사진이 잘 보이나요? 좋아요. 그럼 oo이 이야기해줄래요? - oo이가 어제 우리 친구들이 놀이하는 모습을 사진 작가가 되어서 담아주었네요. oo이가 어제 A 놀이가 너무 재미있어서 다른 놀이를 했던 친구들에게도 소개해주고 싶어서 놀이너울 게시판에 사진을 붙여놓았대요. - 선생님도 우리 꿈마루반 친구들이 어제 놀이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보았어요. 어떤 놀이들을 했었는지 함께 미러링 화면 볼까요? [감정판 보며 이야기 나누기] - 꿈마루반 감정판에 '기뻐요'를 표시한 친구들이 많아서 함께 기쁨을 나눠보려고 모여 앉았지요.
	[쌓기 영역] - 자석 벽돌 블록 - 아이링고 - 디폼블록 [미술 영역] - 스펡글 - 폼보드, 하드보드지 - 모루, 노끈 - 색모래(목공풀 투명해져서 관찰음 언급), 스펡글 - 자연물(솔잎, 나뭇가지, 나뭇잎, 낙엽, 솔방울, 잔디) [언어 영역] - 글자 모르는 유아 지원 요청 -> 이름에 글자 들어간 다른 유아가 도움(협동) - 편지 쓰기 - 초대장 - 입장권 [음률 영역] - 터치벨 / 차임벨 - 소고 / 롤리팝 드럼 / 봉고 / 곡물 악기 - 귀로 / 우드블록 / 돌림실로폰(멀티톤 블록) - 오션드럼 / 레인스틱 [신체 표현] - 스카프 / 한삼 / 리본막대 / 공

마무리	1. 활동 평가 (즐거웠던 점 / 변화된 점 / 알게된 점) - 지식,기술,태도 활동 목표 넣어서 유아 답변 이야기하기 2. 확장활동 소개 - 가정 연계(영상 패들렛에 공유) - 다른 연령과 공유(초대장 만들기) 3. 다음활동 안내 및 전이
영역 간 전이	1. 도움 요청 유아 2. 배회 유아 (함께 전체 놀이 돌아보며 다음 영역에 정착) 3. 사랑하는 유아 4. 아름다운 소리(음률) / 웃음 소리가 끊이지 않아 궁금해서 옴
매체	- VR, AR - 폴라로이드, 캠코더 - 라이트박스 - 빔프로젝터 (배경 사진 _ 테블릿으로 함께 찾아봄) - 뮤직파이프 - 스마트렌즈 - 드로잉어플 - 인공지능 스피커 (헤이 구글) - 패들렛, 밴드
자유 놀이 교사 지원 방법	1. 공간 지원 (통합, 교실 외 공간) 2. 자료 지원 (유아 요청, 교사 제안) 3. 어려움 지원 (아이디어 고갈, 유아 간 갈등, 놀이 쉽게 참여x, 유아 간 협력 상황) 4. 교사가 놀이 참여자로 개입 5. 유아 궁금증 함께 해결 6. 디지털 지원 (배경 스크린 / 스마트렌즈 / 드로잉 어플)
수업 실연 평가 기준	1. 유아의 표현이나 행동에 대한 긍정적 상호작용 2. 유아가 한 말의 사고 촉진, 극대화하기 위한 상호작용 (어떻게 / 왜 그런 생각?) 3. 언어 사용 (어려운 말x) 4. 비언어적 표현 활용 (손, 표정) 5. 목표 반영한 평가 6. 구상지 보지 x

5. 시험 당일 상황 기록

저는 면접은 1번, 수업은 마지막 관리번호를 뽑아 극과 극의 순서로 2차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면접은 1번이라 많이 떨리지만 또렷한 정신에서 시험을 볼 수 있었고, 빨리 나와 다음날 수업을 준비할 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수업은 9시간 내내 자료도 보지 못한 채 가만히 앉아만 있어야 해서 정말 정말 힘들었습니다.

올 해 경기도 면접 문제가 예년과 달리 시책을 암기하지 않으면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여러 개 나와 많이 당황스러웠고, 요구하는 가짓수가 너무 많아 많이들 시간이 넘쳐 답변을 마무리 짓지 못하신 분이 많았습니다. 저도 처음 문제를 뒤집고 너무 어려워 '망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 앞이 캄캄해졌지만 바로 멘탈을 잡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것들만 다 말하고 오자. 이걸 모두에게 어려울 문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답변을 구상하였습니다.

평가실에 들어가 꽤 빠른 속도로 막힘 없이 구상형 문제들을 답변하였음에도 즉답형 1번을 생각하고 있는데 3분 남았다고 종이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시간이 매우 촉박했기에 즉답형 1번은 요지만 말하고 넘어가고 즉답형 2번은 30초 정도 생각하고 바로 답변을 시작해 이상입니다와 동시에 종이 울렸습니다. 즉답형 2번이 자신이 도전했던 경험과 배운점을 말하고 교사로서의 실천방안 2가지를 말하는 것이었는데, 제가 대학생 때 했던 동아리나 실습 때의 경험들을 미리 면접 준비할 때 생각해놓았으며, 배운 점을 '소통'으로 연관지어 이 역시 미리 고민해 놓은 소통 관련 실천 방안을 그대로 말하였기에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답변이 가능했습니다. 면접은 1번이었어서 그런지 꽤 엄숙하고 경직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수업실연 날에는 마지막 관리번호를 뽑은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9시간을 꼼짝 않고 기다려야한다는 생각에 긴장감도 사라지고,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너무 괴로워서 독방에 갇힌 사람들의 심정이 이렇까 하는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순서가 되자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 이제 나갈 수 있다는 기쁨에 가벼운 마음으로 구상실로 이동했습니다.

수업실연 문제지를 뒤집은 순간 자유놀이만 준비했던 저는 '극놀이 준비를 실연하시오'라는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동극이 가장 취약했고 수업 연습도 한 번 밖에 안해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극놀이 준비 상황 역시 극놀이 준비를 위한 무대 만드는 팀(쌓기), 소품 만드는 팀(미술), 음악 만드는 팀(음률) 등으로 나눠 자유놀이를 풀어나갔습니다. 이번 2차에는 수업 실연과 나눔에서도 경기 시책 중 하나인 '경기 유아 미래 역량'을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이를 전에 운 좋게 시책에서 해당 부분을 암기했었어서 올바르게 답변할 수 있었고, 감독관분들께서 제가 시책 용어들을 정확히 사용하면서 나눔 답변을 하자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전에는 시책을 몰라도 어느 정도 답변이 가능하게 문제가 나왔었지만 이제는 경기로 응시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시책 공부를 더욱 탄탄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ㅠㅠ

6. 수면 및 건강 관리 방법

저는 평소 누가 깨우지 않으면 13시간도 잘 수 있을 정도로 잠이 많았습니다. 밤을 새서 공부하면 다음날 속이 좋지 않아 오히려 공부에 차질을 주어 학창시절에도 밤을 새어 공부한 적이 없었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체력도 좋지 않았기에 저는 남들보다 조금 더 잠을 자고, 대신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는 버리는 시간 없이 알차게 공부하자고 생각하며 하루에 7시간 이상 충분히 잠을 잤습니다.

남들보다 수면 시간을 많이 갖는다는 죄책감에 문풀 시기부터는 깨어있을 때는 밥먹는 시간도 아까워 엄마가 도시락을 싸서 스터디카페로 가져다주셔서 30분 동안 먹었고, 그 시간에도 부족한 부분 암기를

하며 깨어있는 시간은 단 10분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스터디카페나 학원을 오고 갈 때에도 오답 노트를 보며 이동했고, 씻을 때에도 화장실 벽에 아동복지법과 7대안전, 해이실을 코팅해 붙여놓고 암기 하고 인출했으며 잠들기 전에도 휴대폰을 하지 않고 바로 잠에 들었습니다. 공부를 하며 따로 쉬는 시간도 갖지 않고 내내 공부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에 들기 위해 누운 순간이 유일하게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시간이자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학원에 가지 않는 날 저의 하루 루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매일 공부해 충분한 수면시간을 확보하면서도 하루 13-16시간의 순공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점심, 저녁 시간 제외 / 피곤하지 않은 날은 더 일찍, 더 늦게까지 공부했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7:30-8:00	기상 및 스터디카페 이동
8:00-11:30	해이실, 법, 안전
11:30-12:00	점심, 오답노트 암기
12:00-17:30	개론, 각론 공부 1
17:30-18:00	저녁, 부족한 내용 보충 암기
18:00-23:00	개론, 각론 공부 2
23:00-24:00	귀가 및 씻기 (놀이실행, 7대안전, 아동복지법 암기)

오전에는 공부가 늘어지는 날들이 있어 그런 날은 해이실, 법, 안전을 오후로 빼고 개론을 오전에 공부하는 등 매일의 컨디션에 맞게 조정하여 공부하였습니다.

저는 허리가 많이 안좋아 초수 때에는 장시간 의자에 앉아있는게 너무 고통스럽고 허리가 너무 아파 일 어날 수도 없어 누워서 공부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한의원에서 침도 맞아보고 도수치료도 받아보고 여러 시도를 한 결과, 저에게 가장 잘 맞았던 방법은 Snpe라는 운동이었습니다. 초수 때에는 일주일에 1~2번 센터에서 Snpe 개인 수업을 받으며 통증관리와 체력관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생 때부터 해오던 취미 발레도 일주일에 한 번 병행하며 건강 관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올인 재수 때에는 이조차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고, 모두 그만두고 Snpe 소도구인 바른자세 다리 벨트와 다나손, 웨이브 베개를 활용해 허리 통증을 관리하며 공부했습니다. 다리 벨트로 다리를 묶고 공부하면 허리가 거의 아프지 않았고, 통증이 있을 때에는 다나손을 의자와 허리 / 목 사이에 끼워 지압하면서 공부했습니다. 웨이브 베개는 자기 전 매트 위에 놓고 누워 잠깐 몸을 풀어주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허리 통증이나 목, 어깨 통증이 공부에 방해가 되시는 분들께 다리 벨트와 다나손은 꼭 구비해 활용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시험 1주일 전부터 계속 구토를 하고 앉아 있는게 힘들 정도로 몸이 급격하게 안좋아져 매일 병원에서 수액을 맞으면서 공부하였습니다. 결국 시험 전날에도 몸이 회복되지 않아 1년 동안 준비해온게 시험 당일 하루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아파 수포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멘탈도 같이 무너졌고, 시험 당일에도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발 시험 끝날 때까지 몸이 버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험을 보러 다녀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이없는 실수들을 하며 1차 시험에서 0.33점 차이로 불합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건강 관리도 신경 써야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건강 유의하면서 공부하세요..!

7. 스트레스 극복 방법

기억이 미화된 것일지도 모르지만, 저는 공부하면서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삶을 사려고 노력하는 편이라 올인 때에는 교수님의 조교로 함께하며 공부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공부했습니다. 학원 가는 날만을 바라보며 힘들 때 '그래도 이틀만 있으면 학원 가는 날이니깐!'하며 버텼고, 앞서 언급했듯 저 혼자 직장 날 교수님과 함께 인출했을 때의 뿌듯함을 느끼기 위해 암기 대결을 준비한다는 느낌으로 재미있게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열품타'라는 공부시간을 측정해주는 어플을 활용하며 1년간 하루도 빠짐 없이 공부하고 하반기에는 매일 12시간 넘게 공부하며 가장 진한 색으로 월별 달력이 물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성취감을 느끼며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맨 앞 장에 적은 저의 좌우명인 知之者不如好之者 好之者不如樂之者는 제가 몸소 느낀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공부하며 소소하게 느끼는 뿌듯함과 성취감을 만끽하며 임용을 공부하는 과정을 즐길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8. 소감(공부하며 느낀 점)

임용을 준비하며 이 많은 양을 어떻게 다 암기할지 처음엔 참 막막하고 부담이 컸습니다. 하지만 그 부담감에 압도당해 여러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주눅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씩 꾸준히 반복하다보면 처음에는 인출도 잘못하고 공부가 잘 안되는 것 같을지라도 어느 순간 급격하게 자신의 실력이 성장한 것을 느끼는 순간이 분명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학부 졸업 후 바로 현장에 투입되었다면 많이 부족한 교사여서 아이들에게 매일 미안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강의를 들으며 공부하면서, 저는 임용 합격을 위한 공부가 아닌 진정으로 유아를 위한 참된 유아 교사가 되기 위한 지식을 쌓고 내면을 가꾸어나가는 공부를 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며 부족한 이론적 지식을 쌓았고, 교수님의 언행과 교사다움을 본받아 교수님처럼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유아와 함께 성장해나가는 교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수험 시절을 공립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만나기 전 능력을 키우고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해가는 연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남은 시간을 즐기며 교사로서의 지식, 기술, 태도들을 축적해나가 시기를 응원합니다:D